

혁명가의 거친 삶, 애잔한 가족사 조명

이정 박현영 일대기

임경석 지음
역사비평사/2만원



모스크바 주세죽(박현영의 첫부인) 무덤 앞에 선 원경 스님과 박비비안나.



1946년 4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시절 모스크바의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딸 비비안나에게 보내기 위해 찍은 박현영의 사진.

『두만강 푸른물에』
가수 김정구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이 사회주의 운동가 박현영(1900-1956)을 소재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경석 성균관대 인문학부 교수가 최근 펴낸 <이정 박현영 일대기>에서 아들인 원경 스님(평택 만기사 주지)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이 책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대부이면서도 훗날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혁명가 박현영의 생애를 연보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박현영의 행적과 언행을 시간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재구성했으며, 행적에 대해 배경설명과 해설, 논평 등도 덧붙였다. 또 박현영의 가족과 친구들의 동정, 국제정세의 변동,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주요 사건들도 다뤘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94-96년 모스크바 문서보관소에 직접 가서 발굴한 사료들과 딸 비비안나와 아들 원경 스님의 보관자료들이 적극 반영돼 있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박현영의 사망일을 1956년 7월로 확정된 것도 한 예다. 전직 북한 고위관리 박길룡이 원경 스님에게 "1956년 연안파와 소련파가 합세하여 김일성에 도전하자 동유럽과 소련을 순방 중이던 김일성이 급거 귀국해 그날 저녁 내무상 방학세에게 박현영의 처형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서 밝혀졌다. 또 박현영이 1928년 11월부터 1931년 말까지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모스크바의 국제레닌학교 영어반에 재학했을 때의 일도 자세히 드러났다. 당시 그는 호치민 등 각국에서 온 청년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공산 혁명의 이론과 전략을 배웠고 뛰어난 역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대부 1956년 美 간첩혐의로 北서 총살 행적과 언행, 시간 순서로 구성 아들 원경 스님 보관자료 흥미로워

보통 인물 연구를 다룬 책은 연구 대상에 대한 지나친 예정으로 인해 그 인물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 시켜 독자들에게 이해를 강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저자의 꼼꼼한 자료추적을 통해 이런 문제를 비껴가기에 적절한 형식을 갖췄다. 그래서 저자는 연구 대상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없이 그저 박현영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자료를 통해 제시할 뿐이다.
박현영은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림받았던 사람이다.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로, 북에서는 미제의 간첩으로 처형됐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반기지 않는 미야 신세의 인물이다. 일제하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공산주의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서 미군정과 대립했다. 그러다 결국 1956년 북한에서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처형됐다. 이렇게 남북 모두 양립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일제강점

기와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박현영은 계속해서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특히 조선공산당의 책임자가 미제의 간첩으로 처형했다는 아이러니컬한 역사적 사실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박현영의 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됐다. 첫 번째 부인 주세죽이 소련으로 망명하는 도중 192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난 딸 비비안나와 일제를 피해 도망다니던 1941년 '아지트 키파'였던 정순년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인 원경 스님이 그들이다. 특히 원경 스님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6·25 전쟁을 전후해 절에 맡겨진 뒤 불가에 귀의하게 됐다.
1991년 10월 두 형제는 모스크바에서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원경 스님은 이날의 만남에 대해 "잠 뉘랄까,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느낌이 가슴에 차 올랐다"고 회고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박현영이 195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56년 7월 평양 근처 산속에서 총살됐다는 얘기, 주세죽은 해방 후에 북으로 귀환하고 싶었으나 끝내 허용받지 못했다는 등의 슬픈 가족사가 이어졌다. 이후 두달 뒤 서울에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러한 만남은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번에 나온 박현영 일대기는 오는 6월 간행 예정인 <이정 박현영 전집>에 포함된 것을 대중용으로 만든 것이다. 93년부터 서종석 성균관대 교수 등의 주도로 편찬 작업이 시작된 <이정 박현영 전집>은 제1-3권 박현영 저작집 제4-7권 관련 자료집 제8권 증언과 회고록 등 간접자료 제9권 일대기와 사진자료로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책 읽는 소리> <비슷한 것은 가짜다> 등을 통해 딱딱한 고문(古文)을 현대와 소통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쉽게 풀어 소개해준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이번에는 '벽(癖)'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소개한 책이다.
허균, 권필,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 김득신, 노균, 김영 등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무언가에 '미친' 만이아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책 제목도 <미쳐야 미친다>이다.
꽃에 미쳐 하루 종일 꽃만 바라보며 꽃그림을 그렸던 김득형, 돌만 보면 버릇을 깎았던 석지 정철조, 담배를 너무 좋아해 아예 담배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책을 엮은 이육, <백이전>을 무려 1억1천3천 번 읽은 독서광 김득신, 스스로를 간사치(책에 미친 바보)라 했던 이덕무... 또한 정약전의 <협산어보>, 김려의 <우해이어보>, 정약용의 그 엄청난 저작들은 어느 한 분야에 온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도

조선 지식인은 '원조 마니아'

정약전 박지원 등의 저서에서 열정과 광기 탐색

저히 나올 수 없는 지적 소산들이라는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18세기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이러한 열정과 광기를 그들이 남긴 옛글의 행간을 토대로 하나하나 탐색해 나간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不狂不及)는 화두는 나태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저자의 삶의 화두이기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는다. 조선시대 '원조' 마니아 이야기와 함께, 이들의 만남과 남다른 우정, 일상의 평범한 풍경으로부터 비범한 일깨움을 이끌어내는 통찰력에 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김득형에 대한 일화는 재미와 감동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백이전>은 꽃에 미친 김득형이 1년 내내 꽃밭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술의 모양, 잎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이다. 김득형은 아침에 누운 뜨끈 꽃밭으로 달려가 꽃 아래 아예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하루 종일 꽃만 보았다.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이 정오에 해를 받아 어떻게 제 몸을 열고, 저물 녘 다시 오무룩다가 마침내는 시들어 떨어지는지, 그 과정을 실재 없이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렸다. 아니 그러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글로 옮겨 쓰기도 했다. 손님이 찾아와도 훑 훑 피는 모습을 놓치지 말까봐 말도 시키지 말라는 표정으로 꽃만 바라봤다. 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완전히 몰았군! 미친 게 틀림없어' 하며 혀를 차거나,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실성을 했?' 하며 안됐다. 이는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
미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다. 자기자신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출세에 보탬이 되든 말든 혼자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러 재고 저리 재고, 이것저것 따지지만 해서는 전문의 기예, 즉 어느 한 분야의 특출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런 진리를 알려준 이 책은 나태해진 우리들의 삶에 경종을 울려주기에 충분하다.

홍희선(영서대 국문학과 강사)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童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농협 053-02-109450 윤계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민족사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